

LMO 유해 하다는데... 관리 뒷전인 전남대

〈유전자변형생물체〉

최근 5년간 위해성 평가 6개 국립대 중 매년 최하위

유해성 검증 안돼 유출시 생태교란 등 2차 오염 우려

전남대학교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LMO 환경 위해성 평가기관 점검 결과, 기관이 설치된 6개 국립대 가운데 전남대가 매년 최하위 성적을 보였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물체를 뜻하며, 인체 유해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데다 자생·번식하거나 돌연변이가

능성도 있어 일반에서는 재배가 금지돼 있다.

전남대 성적은 매년 하락 추세까지 보이며 지난해는 점검 대상 13개 기관 중 유일하게 70대(71점)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91점), 경북대(90점), 제주대(87점), 경상대(80점) 등의 순이었다.

2012년(C등급)과 2013년(D등급)에 전남대와 함께 저조한 성적을 받은 경북대는 매년 성적이 개선돼 2015년 88점, 지난해 90점을 기록했다.

전남대는 2년 연속 같은 내용의 미흡·검토사항을 지적받는 등 개선작업도 부진했다.

2012년과 2013년 평가결과와 전남대는 '신규 기관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는 LMO의 유해성 등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주변 농지 등 자연환경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가 중요한 데도 2년 연속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2015년과 지난해에는 '배수로와 집수정에 침적토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핵심적인 안전시설인 배수로와 집수정

에 흙이 쌓여 빗물이 넘지면 꽃가루나 종자가 주변 농지로 흘러 오염시킬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신 의원은 "LMO의 위해성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남대가 과연 LMO 환경 위해성 평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기관 운영체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LMO위해성 평가기관은 LMO를 온실이나 자연환경에게 재배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지난 2016년 기준 국립대 6곳을 포함해 모두 13곳이 평가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7 해질 17:46
달출몰 11:21 달지름 21:43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9/21	보성	맑음	5/20
목포	맑음	6/21	순천	맑음	8/22
여수	맑음	11/20	영광	맑음	6/19
나주	맑음	6/21	진도	맑음	8/20
완도	맑음	10/21	전주	맑음	7/20
구례	맑음	4/21	군산	맑음	7/20
강진	맑음	7/21	남원	맑음	5/20
해남	맑음	6/21	축산도	맑음	12/8
장성	맑음	5/20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북~북동	남~남동	북~북동	남~남동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0.5	0.5
	면바다	0.5~1.0	0.5~1.0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0.5	0.5
	면바다(동)	0.5~1.5	0.5~1.5	0.5~1.5	0.5~1.5
면바다(서)	북~북동	1.0~1.5	1.0~1.5	0.5~1.5	0.5~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06	04:55
여수	22:46	17:36
	05:17	11:57
	18:07	23:54

◇주간 날씨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11/1(수)
☀	☀	☀	☀	☀	☀	☀
9/21	11/22	10/23	10/17	6/16	5/18	7/19

◇생활지수

☀	장후없음
☀	산불위험
☀	보통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학교급식 중단 피했다

교육부-학비노조 임금협상 합의

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 임금협상에 사실상 합의에 올랐을 때 학교급식 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다.

24일 서울교육청과 노동계에 따르면 교육부·교육청 대표단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 대표단은 전날 밤샘 협상을 벌여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현재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양측은 학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2년차부터 적용)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3만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 올리는 데 합의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상승 폭을 4만원으로 올리기로도 했다.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데도 동의했다. 근속수당 도입·인상은 비정규직 쪽 요구사항이었고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은 교육 당국이 제시한 근속수당 도입·인상의 전제조건이었다.

교육 부문은 예정 주6일 근무시절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한 근무시간 243시간을 주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조정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당장 내년 부터 적용하되 이 탓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보조수당을 지원한다.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현재 제법 시점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 후 토요일 근무자 수당지원 문제 등 세부 사항 조정만 남겨둔 상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9~30일 한 차례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 하루는 아이처럼...

24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체육관에서 열린 '2017년 북구 여성화합한마당' 행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단체게임을 하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북구 주최로 진행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상곤 "자소서·교사 추천서 축소·폐지"

교육부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학종 신뢰도 높여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소서 추천서 등 논란이 되는 항목을 축소·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입시정책을 바꾸고 학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수시모집 눈물전형을 축소해왔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있다"며 "학종 전형요소인 자소서나 교사 추천서도 부작용이 있어서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신 수시모집의 큰 축인 학종의 신뢰성이 바닥인 상황에서는 수능 절대평가에 따른 정시모집 축소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입제

도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학종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 너무 다양한 요소를 요구한다는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정책의 경우 "40~50년을 내다봐야 한다"며 철학과 맞지 않더라도 현 정권 이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는 우선선발권을 폐지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전체의 4%밖에 안 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조선대 이사회 기능 '마비'

이사 추가 사퇴에 정족수 미달... 임시이사 파견 '주목'

조선대학교 법인 제2기 이사 1명이 추가 사퇴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오는 30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24일 조선대에 따르면 김창훈 제2기 개방이사가 지난 20일 알림 마당을 통해 이사회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예초 정원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출발한 제2기 이사회는 지난 9월 사퇴한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사퇴함에 따라 강현욱 전 이사장을 포함해 4명만 남게 됐다.

조선대 법인 제2기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구성원 간 시각 차이로 후속 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1명이 사퇴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제2기 이사 즉각 사퇴 및 국민공익형 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조선대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사업 전국 최하위

전남도교육청이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운영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 822개 가운데 84개에 그쳐 10.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경북(9.3%)·경기(9.3%)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남 도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은 총 3만1천520명으로 행정구역별로 널리 분포돼 있다. 그러나 목포(25교)·여수(15교)·순천(12교) 등 큰 도시에서만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종형기자 golee@

올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기쁜 기쁨!!

보조배터리, 손톱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 자격조건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ன்ப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지원 및 예적금방위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일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가입시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첨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 223-7217, 223-7218